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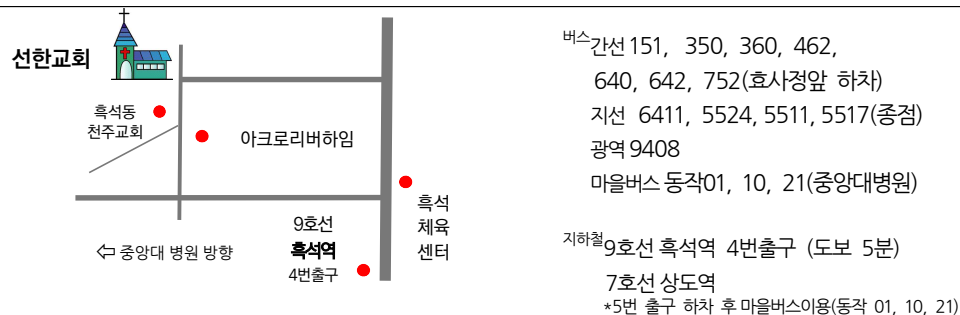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박 희 태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윤 익, 박 영 근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조 계 승,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79장 (통일찬송가 40장)		
	교 독 문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찬 양 과 경 배	94장 (통일찬송가 102장)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일서 4장 12절 ~ 21절		
	설	교		두려움이 없는 사랑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백미경 서진화 신영문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요 일 후				
	부 서 별 모 임			
송 구 영 신	오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예배장소 : 본 당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빌3:13-14) 임춘배 목사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 급 수 료 식 및 신 구 임 원 교 체 식**

오늘 2부 예배시 진급 수료식 및 신규임원교체식이 있습니다.
진급자 명단
 유초등부: 배강호
 청소년부: 강대원, 김유경, 백다현, 이하연
 청년부: 손주은, 손진강, 이찬희
 - 예 배 안 내**

오늘 오후예배는 부서모임으로 드립니다.
 - 송 구 영 신 예 배**

일시 : 31일(화) 오후 11시
 ※ 오후 9시부터 신년 축복기도를 시작합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제목과 헌금약정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 수요예배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신합니다.
 - 운 영 위 원 회 모 임**

오늘 오후 1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1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 제 직 회**

다음주(5일) 2부 예배 후 제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 2 0 2 0 년 달 력**

준비된 달력을 가정별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2월 1일	관계의 십자가				권현국 목사	
12월 8일	종말론 2강				임춘배 목사	
12월 15일	선교사 퇴임예배				강성규 선교사	
12월 22일	성탄절 칸타타				드림성가대	
12월 29일	부서모임				다 함 께	
2019년 성경강론 범위						
12/29	12/30	12/31	1/1	1/2	1/3	1/4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2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한 해동안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주간이 되기를
 결산해야 하는 주님의 보좌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기를
 작은 자를 사용하심으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심을 온전히 믿기를

찬송 :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통 193장)

본문 : 창세기 32장 24~32절

말씀 : 야곱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 자기 생각을 하지만 야곱은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야곱의 '끝장 기도'는 그를 위대한 사람들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믿음의 모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압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다른 곳까지 왔습니다. 야곱게 모은 재산은 물론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업적을 순식간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한껏 동원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판 전체를 확 뒤집지 않고는 더 살 기력도 희망도 없는 일생일대의 대전환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창 32:22~24)

싸움꾼 야곱은 한밤중에 옥쇄할 각오로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민낯으로 드러나는 싸움이었습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이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결산하려면 오직 단독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 절대 고독의 사나이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극적인 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간증하듯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곱은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로 변장한 한 정체불명의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와 씨름했습니다. 마침내 그 신비한 존재가 야곱의 근성에 질렸다는 듯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날이 셀 때까지 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

신비한 존재가 야곱에게 패배를 시인하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그제야 그 사람의 옷을 움켜잡은 손을 거두고 멧쩍은 듯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압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물었던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의 말씀

제 목

두려움이 없는 사랑 (요일 4:12-21)

서 론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 론

1. 온전한 사랑

- (1) 온전한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17절/요일2:28,29)
- (2)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음(18절)
- (3) '형제사랑'의 결론: ①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11절)
②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19절) ③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20절)
④형제사랑은 하나님의 계명(21절)

2. 교훈

- (1) 의와 사랑의 실천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한다.
- (2) 사랑과 두려움은 양립할수 없다.
- (3)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통해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이루자.

결 론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박영근 장로
헌 금 위 원	백미경 서진화 신영문	백미경 서진화 신영문
오후예배 기도	부서모임	김명선 집사

매일 성경 강독		토기장이의 교훈	날짜 : 12월 30일
찬양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95장 / 통일 찬송가 450장)		
통독	예레미야 18장		
본문 내용	본장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본장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서술하고 있는 전반부(1-12절)와 심판의 선포와 백성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13-23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 갖는 공의적 성격을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멸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생각해보기			
1	토기장이의 비유 (1) 1-12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케 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목도하게 하고 그와 관련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임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케 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임을 알리도록 명령 하심 (2) 13-23절: 창조주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회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거하는 완고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언급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신실치 못한 반역 행위를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절대 순응하는 자연의 불변성과 비교하여 신랄하게 비난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해하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의분에 찬 기도를 언급 함 (3)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의 주권을 의뢰할 때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신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진정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핵심 단어	20절. 구덩이를. 파멸, 무덤, 죽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한 백성들의 악한 계락을 의미.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기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벤저민 프랭클린이 가로등을 개발해 거리마다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필라델피아 주민들은 ‘등불이 집 안에만 있으면 되지 어째서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느냐’라며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벤저민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일단 시법적으로 일주일 동안만 밤에 모든 가정의 현관에 등불을 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마저도 많은 사람이 거절해 몇몇 집에서만 밤에 등불을 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등불을 켜 두니 장애물에 치이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내가 밝아지니 밤에도 길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죄율까지 낮아졌습니다. 결국 프랭클린의 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밤에 등불을 켜 놓게 되었고, 몇 달 후에는 모두 가로등 설치를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춥니다. 진리의 밝은 빛은 절대 가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말씀의 은혜로 참된 진리, 곧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비춥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고마움을 크게 깨달은 것은 언제였나요?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1:1~13	
묵상포인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한 편의 아름다운 서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요 말씀으로 묘사됩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땅에 빛을, 사망의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참 빛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됨의 권세를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요한복음의 서두는 어떤 특징을 보이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나요?(1~5절)	
적용하기	악한 이 시대에 성도가 갖춰야 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말씀, 생명,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유다 말기 왕들에 대한 심판	날짜 : 1월 3일
찬양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		
통독	예레미야 22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 패망 시기와 연관 있는 유다 왕들의 범죄를 지적함으로써 표면적인 유다 왕권의 멸망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곧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들의 배도 사실을 시대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당시 유다의 패망이 바로 유다 왕들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유다가 징계를 받게 된 원인과 그 징계의 목적을 설명하고 아울러 여호아하스 때의 범죄를 서술하고 있는 전반부(1-12절)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 때의 범죄를 연속적으로 언급하는 후반부(13-30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유다말기의 세왕들 (1) 1-30절: 유다왕가 전체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 이어 마지막 3왕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보도함. 유다 제17 왕인 살룸 곧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은 그가 이국 땅에 사로잡혀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유다 제18대왕 여호야김은 그가 탐람과 무죄한 피흘림과 압박과 강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유다 제19대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과 그의 무자(無子)로 인하여 그에게서 다윗의 위가 끊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함(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 여호야긴의 삼촌으로 사실상 여호야긴의 왕위를 계승했다고 볼수 없음) (2) 유다 말기의 세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범죄한 유다 왕권과 유다 왕국의 몰락이 변경할수 없는 필연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 (3) 남들보다 많이 가진 자는 더욱더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을 것은 물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3절. 정의를. 윤리적, 도덕적 표준을 말하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깨어진 오지병의 교훈	날짜 : 12월 31일
찬양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찬송가 237장 / 통일 찬송가 226장)		
통독	예레미야 19장		
본문 내용	본장은 전장에서의 토기장이 비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유다의 파멸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여 오지병을 사서 유다 백성 앞에서 깨뜨릴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유다의 파멸을 천하에 공표하신다. 이러한 본장은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유다의 범죄 상황, 그리고 심판 선언을 진술하고 있는 전반부(1-9절)와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진술하는 후반부(10-15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저자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와 훈계를 무시한 유다의 최종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기록함으로써,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성전 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함을 알려 주고 있다.		
생각해보기			
1	깨어진 옹기비유 (1) 1-15절: 예레미야는 백성의 대표인 장로와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고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던 극악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힌놈의 골짜기로 장소를 옮겨 거기서 유다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만큼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옹기를 깨뜨리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우상 숭배한 유다의 파멸이 변개할 수 없는 필연적 사실을 선포하고 힌놈의 골짜기에서 성전 뜰로 돌아와 그곳에서 다시 한 번 심판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에게 재차 선포함 (2) 우리는 어떤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우상 숭배는 특히 다른 죄와 달리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유일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죄인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우리 주위의 우상적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배격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핵심 단어	1절. 오지병을. 오지병이란 진흙으로 구워 만든 질그릇인데 물병의 일종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박해와 예언		날짜 : 1월 1일	
찬양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 통일 찬송가 50장)			
통독		예레미야 20장			
본문 내용		본장에는 선지자의 성전 설교를 들은 당시 제사장 바스훌의 핍박과 이로 인한 선지자의 내적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대한 기대와 선지자의 최종적 고백들이 순환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본장은 예레미야에 대한 바스훌의 핍박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6절)와 예레미야의 애가와 간구가 언급되어 있는 중반부(7-13절), 그리고 출생한 날에 대한 저주와 애가인 후반부(14-18절)로 구성되어 있다. 본장은 각 부분별로 그 표현 방법이 독특한데 전반부는 대조법을, 중반부는 기원문의 형태를, 후반부는 교차법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박해받는 예레미야 (1) 1-6절: 예레미야의 예언에 양심이 찢리고 위기 의식을 느낀 제사장 들은 성전 질서 책임자였던 바스훌을 충돌질하여 예레미야를 박해하게 하자 예레미야는 바스훌에게 ‘마골밋사빕’(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유다 멸망 경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들려줌 (2) 7-18절: 유다 백성들의 거듭된 모진 박해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탄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사 원수들을 보수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 예레미야는 자신의 참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 (몹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 사실도 기록함 (3)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망하며 탄식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그 이후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핵심 단어		4절. 옮겨. '드러내다,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갈등	날짜 : 1월 2일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 통일 찬송가 9장)		
통독	예레미야 21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바벨론의 침입을 맞이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두 길,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 대항치 말고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은 시드기야의 요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선언하고 있는 전반부(1-7절)와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바벨론에 대한 순복을 종용하며 마지막으로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 선언을 진술하고 있는 후반부(8-14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저자는 이제까지 줄곧 지적되어 온 죄악의 결과로서의 심판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진정한 생명을 가리키는 모습으로의 심판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심판에 관한 특별한 예언을 진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적 기준이 된다.		
생각해보기			
1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 (1) 1-10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제3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위기에 처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에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유다의 멸망 및 시드기야의 비극적 최후를 예언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백성들에게 권고함 (2) 11-14절: 유다 왕가 전체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와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경고함 (3) 지도자 된 자는 자신의 책무와 자기 위에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13절. 내려와서. 군사 용어로 성을 공격하려 행군해 내려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